



2024 예술로 어울림

결과자료집

M E E T

**2024
예술로
어울림**



결과자료집





“세상의 모든 벽은 문이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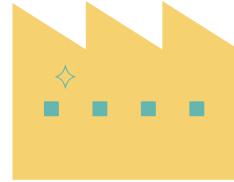
모든 벽은 문입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줄 한마디 (정호승)

2024 예술로 어울림은 굳게 닫힌 산업단지라는 거대한 성벽을
문화예술의 힘을 통해 문으로 바뀌어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며	005
발간사	007
예술로 어울림 사업소개	008
숫자로 보는 '2024 예술로 어울림'	011
프로그램 소개	012
참여자 인터뷰	036
결과공유회 & 전시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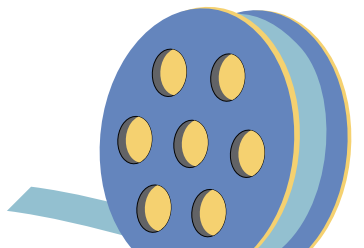
Wool

“모두의 일상이 문화로 생동하는 새로운 남동”

남동문화재단은

2023년 1월 공식 출범하여 문화예술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남동구 곳곳,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 제공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남동문화재단은 지역 주민과 함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예술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문화예술의 만남 : 미완의, 그러나 함께한 빛나는 여정

『2024 예술로 어울림』은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활력을 되찾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980년대 조성되어 40여년간 지역경제를 견인했지만 이제는 시설 노후화와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문화취약지역이 된 남동산단의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24 예술로 어울림’은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자들에게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단순한 배움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이 개인과 공동체, 지역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멸종위기종 저어새들이 서식 중인 남동유수지, 남동산단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중도입국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한누리학교, 국내 최초로 다이내마이트를 생산하던 한화 화약공장 옛 부지에 자리잡은 생태의 보고 늘솔길 공원 등은 우리가 알지못했던 또는 어렵게만 알았던 남동산단과 그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로서 이번 사업을 통한 뜻밖의 소득이자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지역의 산업문화 자원들입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한 젊은 부부부터 먼 타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세대와 소속을 넘어 모두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성장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술로 어울림]이 만들어낸 변화와 가능성을 공유드릴 수 있어 뜻깊습니다.

이번 ‘2024 예술로 어울림’ 결과자료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져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취약 지역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이끌어 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주신 강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남동문화재단 올림

남동국가산업단지 현황 (2024.3월 기준)

면적	9,574천㎡
기업 수	8,001개사
생산	32조원
조성	’85년~’92년
고용	84천명
수출	39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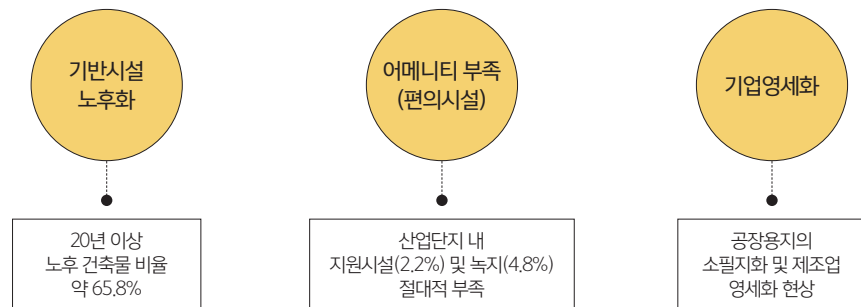


지역 특성

1980년대 공장과 물류 위주로 구획되어 사람을 고려하지않고 조성된 남동 국가산단은 기반시설 노후화는 물론 어메니티가 절대적으로(지원시설 2.2%, 녹지4.8%) 부족해, 일터와 거주지 선택에 있어 주변에 문화·복지·편의집적시설이 있어 문화를 즐기고, 공원을 걷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청년층의 산단 기피현상은 남동산단의 영세화, 공동화를 촉진해 도시성장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의 단초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조성 초기엔 도심에서 멀리 위치하였지만, 수도권 확대와 인천 도심의 발달로 사방이 주거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도심형 산단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대규모 주거지인 송도신도시와 논현신도시 등 신도시에 둘러싸여 노후된 산단이 마치 섬처럼 도시와 극명한 대비를 보임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전체 남동산단 입주기업의 약 9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소부장 업체들이 많아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산단 기피로 이어져 부족한 인력의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는 현실임



2024 예술로 어울림은

산업단지와 같은 문화취약지역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도 신규 도입된 정책사업으로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 시설 부족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기피해 구인난이 심화 중인 산업단지를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명

2024 예술로 어울림
- 사업기간

2024. 6. ~12.
- 사업내용

문화취약지역인 남동산단 근로자와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예산

100,000 천원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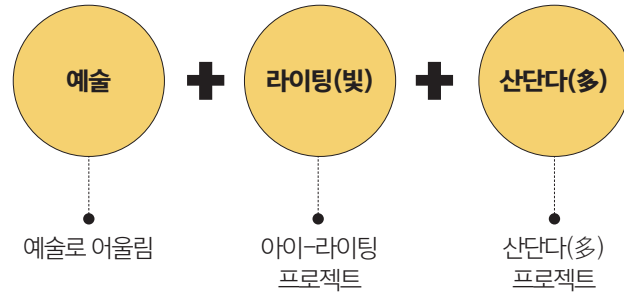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남동문화재단
- 협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저어새 생태학습관, 남동구가족센터, 한누리학교,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분	주요테마	프로그램명
1	남동산단 서사 및 지역 문화자원 연계	박물관 옆 늘솔길 ‘숲 속 사운드테라피’ 저어새와 함께 ‘쉽’ 초단편영화제작 아카데미 ‘29초 무비랩’
2	모두의 문화예술 : 문화공유 관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대상 전통공예 체험, 이주민 자녀 대상 k-pop 댄스&한글문자예술
3	생활문화 향유 관점	따뜻한 빛 나룻길 ‘그래피니 니팅’ 물감으로 그리는 나의 세상 ‘수채화 클래스’ 문화경영 인식확산을 위한 ‘CEO 아침 인문학살롱’ 지친 나를 위한 한때 ‘전통주 담금 체험’ 언저리 아트 페스티벌

핵심 키워드 : 예술빛 산단다(多)

‘밤에도 빛나는 산단’을 만들어가는 산단공 인천본부의 ‘아이-라이팅 프로젝트’와 산업단지에도 예술로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지길 바라는 남동문화재단의 ‘산단다(多) 프로젝트’가 만나 “문화예술로 빛나는 남동산단”을 조성해간다는 의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배경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을 통해 산단에 문화적 요소를 융합하기 위한 민간 중심 지역별 협의체 운영

인천남동국가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인천시 / 남동구

- 문화산단 조성계획 수립 총괄
- 지방비 확보
- 내부부서 협의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 기업체 의견제시
- 메세나 등 제안

산단공 인천본부

- 간사(정책 가이드)
- 브랜드산단 사업 수립

LH, 인천TP, 남동문화재단

- 참여기관 역할분담
- 문화사업 기획·제시

참여기업*

- 사업 수요발굴
- 개선사항 청취

* 지자체 및 산단공을 중심으로 LH, 인천TP, 남동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4개, 남동경영자협의회 및 남동산단 입주기업 대표 4개사를 포함 총 11개 기관 참여

숫자로보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총 교육 시간



총 참여자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강사



만족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장
(24.11.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표창
(24.12.31.)

수상실적

프로그램 소개

2024
예술로
어울림

Wool

문화로 경영하는 리더를 위한

CEO 아침 인문학 살롱



교육강사	김경민, 김태진, 정현우, 김용진	참여인원	45명
운영기간	2024.08.~1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총 4회)	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프로그램 소개	남동산단의 경영자들이 문화예술과 인문학을 통해 문화경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결과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CEO 북클럽'과 연계해 산단 내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문화적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였으며 남동산단의 문화적 환경 변화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 회당 40명 이상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8점으로 나타났고 차년도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산업단지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CEO들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함		

교육 세부내용

과정	회차	세부내용
CEO 아침 인문학 살롱	1회차 (8. 7.)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가치 경영 (김경민 대표)
	2회차 (9.4.)	아트인문학 : 보이지않는 것을 보는 법 (김태진 작가)
	3회차 (10.2.)	지금 잠시 내 마음 가다듬기 (러너웨이 정현우 대표)
	4회차 (11.6.)	심포의 행진곡 (피아니스트 김용진)

참여자 소감

딱딱한 주제의 강의들만 주로 접했었는데 이번 인문학살롱은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무엇보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 심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일상의 심표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 4회차 참여자, 강운공업 오학성 대표 -



모두의 문화예술 문화공유세션 I

전통공예 체험



교육강사	김연옥, 사혜형, 유해정, 전영미, 조현정, 선미덕	참여인원	171명
보조강사	송형임, 정지인, 김점숙, 최순애, 양순애		
운영기간	2024. 07. 28.~11.29. (매주 1회, 총 18회)	장소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남동구가족센터, 한누리학교
프로그램 소개	- 남동산단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공예를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 실현 -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을 배우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적 공감과 유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캘리그래피, 도자기체험, 전통매듭, 우드아트페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문화적 소속감과 창의적 성취감을 얻었으며, 참가자 사이의 교류와 유대감 강화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기여		

교육 세부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캘리그래피	에코백에 캘리그래피로 디자인 입히기 /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전각들에 캘리그래피로 이름을 새기기
도자기페인팅	도자기 페인팅 이해, 기본적인 페인팅 기술 연습 물감과 브러시 사용법, 채도와 명도 조절 연습, 도자기 표면에 페인팅 다양한 패턴 및 디자인의 이해, 템플릿 및 스텐실 활용, 나만의 스타일 찾기
매듭만들기	작품 정하기(목걸이/키링), 기본 매듭법 익히기 전통매듭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 목걸이/키링
우드아트페인팅	나만의 미니차상소반 만들기 / 우드 뿔뿔이만들기 풍경액자(해바라기)만들기
한지공예	한지공예 이해, 과반 만들기 / 색한지 붙이기 / 문양 붙이기 및 서랍 꼭지 달기 / 한지로 손거울 만들기 / 한지로 과반, 육각필통 만들기

참여자 소감

재미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재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 께서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자기 체험을 마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계발을 하기 원했는데 가끔은 평상시와는 달리 다른 느낌으로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 체험을 통해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의 문화예술 문화공유세션 II

우리들의 K-POP댄스



교육강사	박효진	참여인원	12명
운영기간	2024.07.03.~11.27. (매주 수요일, 총 10회)	장소	한누리학교
프로그램 소개	- 이주민 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인천한누리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k-pop 댄스를 배우고, 이를 통해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 -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 한국의 현대적 문화인 k-pop을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내용	- 출석체크 및 스트레칭 - <k-pop댄스 작품> 배우기 - 일정 인원으로 나눠서 공연하듯 연습하기 - 총정리 및 공연 리허설 - 활동소감나누기(그림으로 표현하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들이 k-pop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나누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옴		

한누리학교

인천한누리학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로, 중도입국 자녀 등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K-POP 댄스, 공예, 요리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참여 강사 소감

이번 예술로 어울림 K-POP 댄스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K-POP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음악과 춤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이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팀워크를 발휘하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현하며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박효진 강사 -



모두의 문화예술 문화공유세션 III

한글문자예술



교육강사	박경숙	참여인원	14명
운영기간	2024.09.25~11.27. (매주 수요일, 총 8회)	장소	한누리학교
프로그램 소개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 한글을 주제로 한 캘리그래피 및 POP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남동산단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예술교육활동이며, 한글을 주제로 한 캘리그래피와 pop 아트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한글을 배우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 캘리그래피 기법 익히기 - 기본 획 연습, 점, 선, 곡선, 획 굵기 조절 연습 - 초급 단어를 통해 조합 연습 및 창의적 캘리그래피 디자인 - 다양한 표현 기법(번짐 효과, 그림자 효과, 색상 조합) 익히기 - POP 글자의 특징 및 기법 소개 - 각자 흥미로운 주제로 캘리그래피 또는 POP 작품 계획 - 개인 또는 팀별 작품 만들기 및 발표 - 활동 소감 나누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그래피와 pop 아트 활동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며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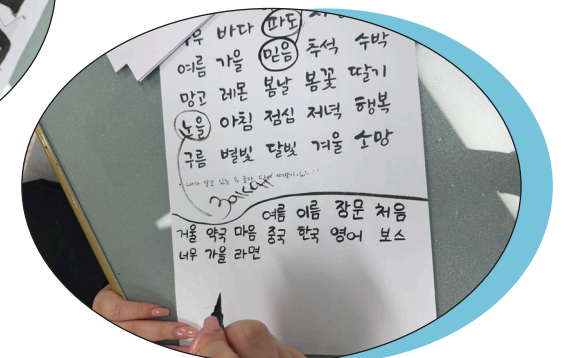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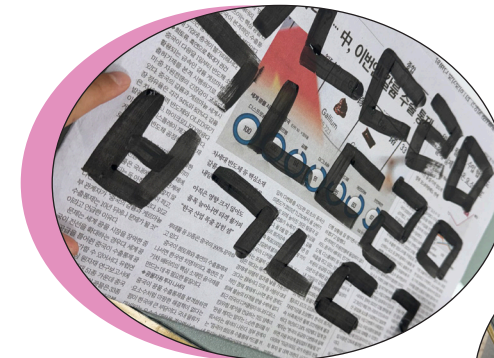
참여자 소감

한글 문자예술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다양성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어요. 창의적인 작업으로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 참가자 카테리나 -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글꼴로 쓰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 참가자 박아리나 -



박물관 옆 늘솔길

숲 속 사운드테라피



교육강사	강헌구, 김유미	참여인원	38명
기획자	엠키(신희승)		
운영기간	2024.10.31.~11.21. (매주 목, 총 4회차)	장소	늘솔길 공원
프로그램 소개	박물관 옆 자연 속에서 사운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소리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연의 소리와 음악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힐링 제공 및 참가자들에게 평온하고 치유되는 경험 제공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 인근의 늘솔길 공원에서 레코더를 활용한 자연의 소리 채집 - 레코더를 벗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 - 악기를 이용한 소리테라피 진행 - 소금 감정화분 만들기 		

참여자 소감

그동안 여러 많은 체험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번 숲속 사운드테라피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체험명만으로는 숲속에서 여러가지 자연물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건가 했는데 강의실 가보니 짐작도 할 수없는 전문 장비들이 여러개 있고 외국 전통악기도 있더라고요~ 강사분의 장비 설명을 자세히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소리 채집기라는 장비로 새소리, 낙엽소리, 내 발자국 소리 등을

듣는데 사운드테라피라고 하시는 이유를 일겠더라고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소리가 머리를 맑게 하고 제 마음이 정화되는걸 실제로 느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주 더 신청을 했지요. 며칠후 수강생들이 채집한 소리들을 강사님이 편집하여 각자의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도 정성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 참가자 정윤정님 -



전통주 체험

지친 내게 주는 시간으로 빛은 환대



교육강사	강예진, 강양욱	참여인원	86명
운영기간	2024.09.27.~11.26. (매주 금, 총 10회차)	장소	남동구근로자종합복지관,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소개	조선시대 반가의 대중주였던 인천 삼해주를 직접 빛는 체험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촉각,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며 근로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주 문화의 이해 : 인천 삼해주 이야기 스토리텔링 - 알고 보면 쓸 데 있는 신기한 전통주 상식 + 스토리 순서에 맞게 시음 (총4종) - 전통주를 마셔본 후 서로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며 소통을 통한 힐링의 시간 - 전통주(삼양춘 탁주) 빚기 - 마무리(참여 소감 나누기) 		

참여자 소감

“지친 내게 주는 시간으로 빛은 환대”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평소
막걸리를 좋아해서 자주 사먹었지만
전통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었는데 새롭고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에서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남매가
전통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상식을
많이 알게되었고 특히, 60넘는 나이에
생전 처음 준비된 이양주에 누룩과 고두밥을
넣어 탁주를 직접 만들어 보는 귀한 경험을
해보게 되어 너무 기뻐요. 빛은 탁주를
집에 가져와 뽀글뽀글 발효과정을 지켜보며
2주간 조바심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1주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시음일.

와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하고
향긋하고 달콤한게 시중에 파는 막걸리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맛있었어요. 아들과
친척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줬는데 모두
맛있다고 엄지척! 아내는 새롭게 막걸리 팬이
되었습니다. 색다르고 보람있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 남동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예술적 감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많이 제공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남동문화재단, 응원하겠습니다. .

- 참가자 김순곤님 -



저어새와 함께

쉽



새와 사람, 공존과 안녕을 꿈꾸다! : 멸종위기종 저어새와 남동산단 유수지

저어새는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관찰되는 여름철새로 전세계적으로 6,000여 마리밖에 남지않은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자연보호연맹지정 멸종위기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홍수피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인공습지인 남동유수지 내 인공섬에서 2009년부터 번식을 시작하였음. 저어새와 친구들 (Black-faced Spoonbill and friends)이란 비영리단체가 인천시로부터 저어새생태학습관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이동물새 모니터링, 조류생태환경교육 등 저어새 보전활동을 추진 중



교육강사	김정희, 신현호, 박은하, 김은희, 김경숙	참여인원	37명
운영기간	2024.9.13.~10.19. (총 5회)	장소	저어새 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소개	남동산업단지 안의 남동유수지에서 자라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저어새의 생태를 알고, 습지에서 만난 새들을 깊게 사유하고 관찰하며 아름다움을 미술로 표현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의 저어새 생태를 알아보기 - 위기 속 우리의 지킴 활동에 대해 탐구해보기 - 저어새와 함께 느끼는 습지 속 "쉽" 명상 - 나와 교감한 새들을 돌위에 새기기 - 활동 소감 나누기 		

참여자 소감

아이들과 함께 남동문화재단의 예술로 어울림-저어새와 함께 '쉽'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근처에 그것도 남동산단에 저어새의 서식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였고 망원경으로 새들을 관찰하면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서 자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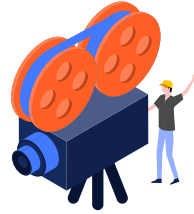
지켜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것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것이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땅을 발로 밟고 서로의 발도 씻겨주며 가족의 사랑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참가자 이은경님 -



짧지만 긴 이야기

29초 무비랩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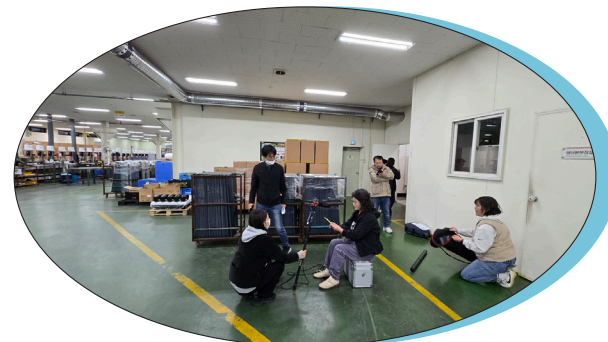
주제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1. 관계형성 2. 초단편영화란?
이야기 찾기	1. 이야기 소재 찾기 2. 컷 샷 앵글이란? 3. 5컷 영상제작
시놉시스 / 시나리오	1. 소재에 맞춰 시놉시스 작성 2. 시나리오 작성 3. 역할나누기
시나리오 / 촬영장비	시나리오 작성, 장비 살펴보기, 장비활용 리허설
콘티	콘티란? 콘티 작성, 촬영 계획 세우기
촬영	장비 활용 익히기, 촬영실습
상영회	제작 영화 상영회

참여자 소감

예술을 향유하는 입장에서 창작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창작자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능동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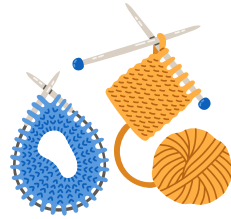
- 참가자 이재경님 -

교육강사	류은애, 정연경	참여인원	8명
운영기간	2024.9.4.~12.3.(총 10회)	장소	남동 소래아트홀 외
프로그램 소개	229초로 대표되는 초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며 영화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결과	-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참가자들은 함께 작업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경험함		



공공예술프로젝트

따뜻한 빛 나무길 만들기



그래피티 니팅의 뜻은 Graffiti(벽 문 따위에 하는 낙서), knitting(뜨개질, 뜨개질 감)의 합성어로
황량한 거리의 나무나 구조물 따위에 직접 만든 뜨개 옷을 입혀주는 활동으로 그래피티 니팅은
겨울만 되면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거리를 황량하게 만드는 것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친환경 거리 예술임



교육강사	김선희, 성미금	참여인원	12명
운영기간	2024. 9. 4.~12. 6. (매주 수요일, 총 10회)	장소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소개	남동산단 근로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가로수에 나무 옷을 만들어 입히는 과정으로, 야광실을 활용하여 밤이 유독 어두운 남동산단의 거리를 밝히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변모시키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결과	남동산단 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나무 옷을 만들기 위한 공동 작업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교류 할 수 있었음. 또한, 전시회를 통해 어두운 거리에서 느끼던 불안감이 해소되고, 친근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변화		

교육내용

- 프로젝트 의의 소개 및 손뜨개의 기초 이론, 뜨개 기법 익히기
- 플래드 블랭킷(1길긴뜨기). 3가지 색상의 바둑판 무늬뜨기
- 타원형 뜨기&그물무늬/구름모양/겹 짧은뜨기, 모자 마무리
- 대바늘 뜨기의 기초 이론 및 뜨개기법 익히기/가이터 뜨기/메리야스뜨기
- 전시 거리 답사 및 나무 사이즈 측정
- 그래피티 니팅-뜨개질 마무리 및 나무 옷 입히기

참여자 소감

뜨개질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며 같이 배우는 동료분들과
친분도 쌓고 즐겁게 뜨개질해 식막한 산업단지에 전시까지 하게되어 보람차고
기쁩니다.

- 참가자 모하영님 -



물감으로 그리는 나의 세상

서양화 그리기



교육강사	최운정	참여인원	10명
운영기간	2024.9.2.~9.23.	장소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소개	서양화의 기법을 배우며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자기 표현을 발전시키며 색과 형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육내용	나만의 해바라기 그리기, 여름 바닷가 풍경 그리기, 초현실주의 작품 그리기 [대주제 - 잉어와 남동산단]		
프로그램 운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촉진 -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 -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한 남동산단 주제 작품활동 		

참여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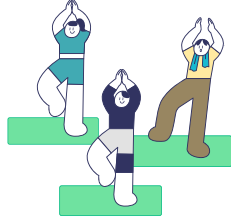
산업단지 근로자들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결과공유 전시도 할 수 있다니 뜻깊고 이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 졌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유순옥님-



Factory Art Fringe

언저리 아트 페스티벌



행사일시 2024.11.1.(금) 16:00~21:00 교육장소 논현포대 근린공원 일원

행사내용

- [야외 영화상영] 가족영화 '어거스트 러쉬'
- [산업문화존] 로봇축구체험, 드론 조종사 체험, 현장노무상담
- [업사이클링존] 우드_집_키링, 그림책으로 만드는 팝업북
- [아트존] 멸종위기동물 페이스페인팅, 폴리아트리스트 체험, 캐리커처 체험
색을 통한 나의 이해 컬러테라피, 가을향기 가득 허브솔트 체험
- [이벤트존] 3점슛 쏘기대회, 흑백슈터, 어쿠스틱공연, 미술체험
- [힐링존] 내 몸을 위한 힐링요가, 댄싱피크닉

언저리 아트 페스티벌(Factory Art Fringe)

『2024 언저리 아트 페스티벌』은 지금은 문화예술의 가장 주변부, 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되고 문화 인프라도 부족한 남동산단을, 찾고싶고 머물고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기위한 남동문화재단의 작지만 위대한 첫 출발, 도약점(Leap Point)임 남동산단과 주거지역 그 경계, “언저리에서 피어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남동산단 근로자와 가족,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함





원코퍼레이션

29초 무비랩 "수상한 직원" 촬영

2024
예술로
어울림
Woole
참여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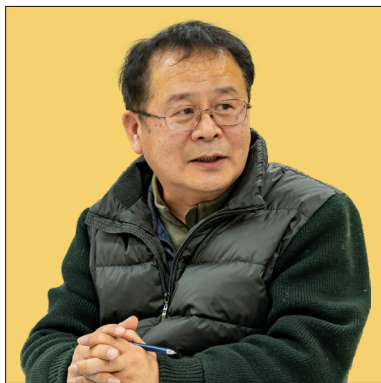
남동산단을 배경으로 한 초단편영화제작 <29초 무비랩>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

자기소개

각자의 목적

임종근, 촬영 감독 (이하 임)



평소 개인적인 취미로 사진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술로 어울림' 프로그램에서 29초 영화를 만든다기에 참여해봤어요.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를 배웠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작은 규모지만 완성되기까지 직접 참여하니 기존에 영화 보던 것과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남동문화재단에서 소방관을 위한 사진전을 잠깐 진행했어요. 그래서 29초 영화 만들기 홍보 문자가 왔더라고요. 유학 중인 딸과 떨어져 지내며 빈둥지증후군을 앓고 있던 참이라, 이제는 내 일을 찾아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참여에 의의를 두겠다며 초반부터 슬레이트 치는 역할을 자청했는데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많은 걸 배웠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적극적이라 같이 힘써서 하다 보니 우울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모시현, 슬레이트 (이하 모)



이재준, 감독 (이하 이)



현재 노동조합에서 교육 선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노조 유튜브가 있어서, 무료인데 한번 배워보라고 아내가 프로그램 웹자보를 보내준 거예요. 와봤더니 모두 하나같이 적극적인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초반에 계신 두 분을 비롯해, 뒤늦게 참여하셨음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단순하게 작업만 하고 말 수 있을 텐데, 영화에 관해 배우기도 잘 배웠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어린 사람을 밀어주셔서 감독이 된 게 없지 않은데, 덕분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아 워낙 많이 보다 보니 제작자들의 노고를 알고 있어요. 한 번쯤 제작에 참여해보고 싶던 차에 빨리 기회가 생겼어요. 남동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기에 냉큼 와봤더니 힘든 동시에 재미가 컸어요. 이제 영화에 더 애착이 가요. 앞으로도 장르 안 가리고 영화 계속 볼 거예요.

이춘일, 배우 (이하 춘)



이재경, 스크립터 (이하 경)



어릴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생업은 예술 관련 일이 아니어서 늘 '영화 만드는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남동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운 좋게 자리가 있어서 참여했어요.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향유하는 입장에만 있다가 제 손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본 경험이 제 삶에 활력을 주고 태도를 바꿔놓았어요. 전보다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고요. 생활하다 보면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적인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게 특별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더 많은 분이 제가 느낀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수업에 임한 계기

기획의 변화

새로운 발견

류은애, 강사 (이하 류)



처음에 청년 대상으로 29초짜리 영화를 만든다는 기획을 듣고 걱정이 컸어요. 말이 29초지 초단편이든 단편이든 장편이든 전반적인 영화 제작은 똑같거든요. 10회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야기를 꺼내시게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큰 숙제였고요. 막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상상보다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괜한 걱정이란 걸 깨달았어요. 계획보다 1~2차시 앞서서 시나리오가 나왔으니까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이야말로 이 수업의 성과 아닐까요.

여태 중학생들과 수업하다가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큰 영광이었어요. 처음하신 것 같지 않게 적극적이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셔서 그 실력에 놀랐어요. 결과적으로도 영화가 잘 나와서 행복합니다.

정연경, 보조강사 (이하 정)



#기억에 남는 순간

내밀한 이야기

한 팀이 된 감동



모 왜, 잘 된 영화들은 주인공들이 그러잖아요. 스태프들과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 말따나 힘든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작업했어요. 자발적으로 모였고 뜻이 맞았잖아요. 누가 돈 준대도 이렇게는 못 할 거예요.

일이라 즐거웠어요. 참여하는 날마다 설레고, 마친 후에는 다음 주를 상상하며 보냈거든요. 협동하는 과정이 재밌어서 솔직히 아쉬워요. 심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춘 4분 30초가량의 영화 한 편이 나오기까지 배우만 잘해서, 촬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님이나 강사님의 리드에 따르되 여럿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류 사실 마을 영화 만들기가 합 맞추는 일부터 쉽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오신 분들 보다는 아닌 분들이 많을 텐데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저마다의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놀랐어요. 저 역시 선생님들처럼 제 거 다 꺼내서 신나게 수다 떨었고 즐겁게 촬영했어요.

이 어떤 영화를 찍을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 저마다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인생을 듣고 현재의 모습을 보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주는 감동을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꼭 이어지길 바라요.

정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일 마치고 시간 내서 오시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게 느껴 지더라고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한 뒤에는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시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계속 갖고 계셨으면 해요.

경 참여하는 동안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골몰하는 게 일상에서 벗어난

영화의 메시지

일상에 예술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

남동문화재단에
바라는

춘 기회만 되면 연극 무대에 엑스트라로 가더라도 배우로 연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일상적 공연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임 콘티를 직접 그리며 만들어봤으니,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각본을 짰 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만들어보려고요. 그때는 촬영감독이 아닌 감독으로요.
영화 제작은 절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여럿이 역할을 나눠서 어느 때는 나서기도 하지만 양보하는 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많으니 애초 기획처럼 청년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바라요.

모 지금껏 주 1회 뮤지컬, 영화, 연주회 등에 다녀왔는데, 저보다는 딸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어릴 때 접하지 못한 걸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죠. 예술 경험이라는 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잖아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늘길 바라요.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의 심화반도 괜찮겠어요.

경 돌아보니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한다'는 메시지가 우리가 모인 목적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관심 주제를 연극이나 영화로 표현하려고 희곡 작법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사는 게 바빠

잊고 있던 모습과 의욕이 다시 타올랐어요. 생업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계속 생각해 왔던 얘기들을 시나리오로 써 볼 거예요. 저야 운 좋게 프로그램을 찾았지만, 재단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산업단지가 있으니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처럼 외국인 노동자나 제조업 노동자를 찾아가 예술 복지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요?

이 내년엔 저희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 정도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재단의 역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하고 참여해 볼 기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일과시간 외에 저녁 시간대도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담당자가 더 필요할 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요(웃음)?

류 프리프로덕션부터 마지막까지 포스트까지 넘어가야 하는 과정을 10회차 안에 넣으려다 보니 주말에 따로 시간을 빼서 촬영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했어요. 앞으로는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협조가 잘 되면 좋겠어요.

손뜨개로 만드는 따뜻한 빛 나무길 <그래피티 니팅>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

자기소개

각자의 목적

최정희, 참여자 (이하 정)



남동산단은 차를 타고 지나면서 봐왔기에 공장만 가득한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언니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니 새로운 모습이 많더라고요. 산단 안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물과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뜨개질로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집이 멀지 않아서 자전거로 오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듯해 기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남동산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전에 탁구와 캐리커처를 배웠는데요, 무료교육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고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어요. 무료로 개방하는 카페도 있으니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요.

정경의, 참여자 (이하 의)



#수업에 임한 계기

뜨개질의 따스함

지역을 위한 봉사

섬유공예 작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보통 뜨개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간단한 소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피티 니팅은 뜨개질로 내가 사는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뜨개질하며 컬러의 다양성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삭막한 도시를 지키고 있는 나무에 실이라는 따뜻한 소재로 옷을 입혀 주면서 지역을 위한 봉사와 활동에 참여하시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해서 참여했어요.

김선희, 강사 (이하 선)



성미금 보조강사 (이하 금)



부평에 살면서 부평 마을강사 양성과정에서 김선희 강사님을 만나 뜨개질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 뒤로 더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강사님과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뜨개질할 때는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 하는 만큼 느끼는 게 뜨개질의 가장 큰 매력이라구요. 참여자분들이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

실로 이어진 관계

작은 패턴이 모여 큰 작품으로



정 초반에는 지역에 전시된다고 해서 긴장했지만 실력이 느니까 전시되는 게 오히려 뿌듯하더라고요. 원체 배우는 걸 못 한다고 여겼는데 강사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에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걸 계기로 앞으로 다른 것도 잘 배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의 전부터 뜨개질을 배우고 싶었어요. 큰 작품을 뜬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데, 작은 패턴을 모아서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이젠 자신감이 생겨서 유튜브를 보며 계속 만들어보고 있어요. 강사님께 배운 걸 떠올리면서요. 또 나무에 따뜻한 옷을 입혀 주고 나서 보람도 많이 느껴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다양한 봉사에 참여해서 좋은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어요.

선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만큼 참여하신 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 열성에 반해서 일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손도 서툴고 관계도 서먹했지만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다음 강의 때 그대로 만들어 오시고, 서로 친해지셔서 같은 동네 분들은 카풀도 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실을 더 준비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프로젝트였어요.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마음이 잔하네요.

금 참여하신 분들이 끝나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실 때 저도 찡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무료할 틈 없이 열의를 쏟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도 느껴본 즐거움이었는데 참여하신 분들도 그 즐거움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 매우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지역을 공예로
변화시키는

남동구 전체로
번지는 나비효과

남동문화재단에
바라는

정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은 많지만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마땅히 없어서 남동문화재단의 이번 프로그램이 매우 즐거웠어요. 교육도 아주 좋았고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과 관계를 쪽 이어갔으면 해요. 한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는 참여한 사람들과 단합하고 친해질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네요. 끝날 때쯤 친해지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소래 아트홀은 매주 공연을 보러 자주 들르는데 재단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 공예 쪽으로 관심이 많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남동구에도 문화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프로그램 소식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해 주시면 참여하기 수월할 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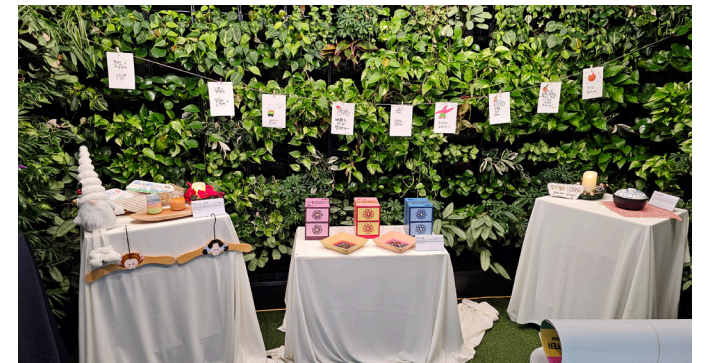
선 이번 프로젝트로 만난 참여자분들과는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봉사와 따뜻한 마음이 나비효과처럼 남동구 전역에 번져나가기를 바라요. 다음번 그래피티 니팅 프로젝트는 더욱더 재밌고 수준 높게 진행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금 이번에 남동산단에 처음 와보면서 공장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막한 공간을 공예를 통해 하나하나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만일 남동산단 내에 공간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면 시간이 닿는 한에서 꾸준히 오가며 조금씩 변화를 지속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결과공유회 & 전시

THE LAST CHAPTER : 미완의, 그러나 함께한 빛나는 여정



본 저작물은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 예술로 어울림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12. 31.
발행처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발행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기 획 남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디자인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